

복십자 대상 공로부문

국가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한 삶
김상재 前연구원장



1966년부터 36년간 결핵연구원 미생물부장 및 결핵연구원장을 역임하며 국민보건향상에 대한 각별한 사명감으로 결핵퇴치사업에 적극 헌신하였으며 결핵전문가로서 활발한 결핵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외 결핵의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함과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범세계적 결핵퇴치를 위해 공헌 하셨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자문

- 국가결핵관리사업 초창기 결핵균 검사체계 수립 및 결핵균 검사기법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향상시켰으며 오늘날 결핵연구원을 세계보건기구(WHO) 협력기관으로 인정 받게 하는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증진에 크게 공헌.

활발한 결핵연구 활동으로 결핵학술 발전에 공헌

- 결핵퇴치를 위한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우리나라 환자에게서 유행하는 결핵 내성균의 특성 규명 등의 업적을 남기고 국내외적으로 15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 결핵학술 발전에 이바지

범세계적 결핵퇴치 활동에 적극 참여

-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항결핵및폐질환연맹의 결핵세균학 자문위원으로 적극 활동하면서 국제적인 결핵문제 해결에 기여

복십자 대상 봉사부문

결핵퇴치를 위한

아름다운 희생과 봉사정신,
부산시 남구보건소 정인옥 지방간호주사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26년간 불우 결핵환자 관리업무에 매진하였으며,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국가결핵퇴치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 결핵관리 증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1981년 김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뜻한 바 있어 가톨릭사회복지단체에서 불우결핵환자를 위한 무료 자원봉사활동

1988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무한한 봉사정신과 탁월한 사업 추진력으로 대국민 결핵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반 사업을 확대, 발전시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전염병 환자 발견과 치료를 통한 지역주민 보호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위선양에 일익을 담당

TB ANYWHERE IS
EVERYWHERE